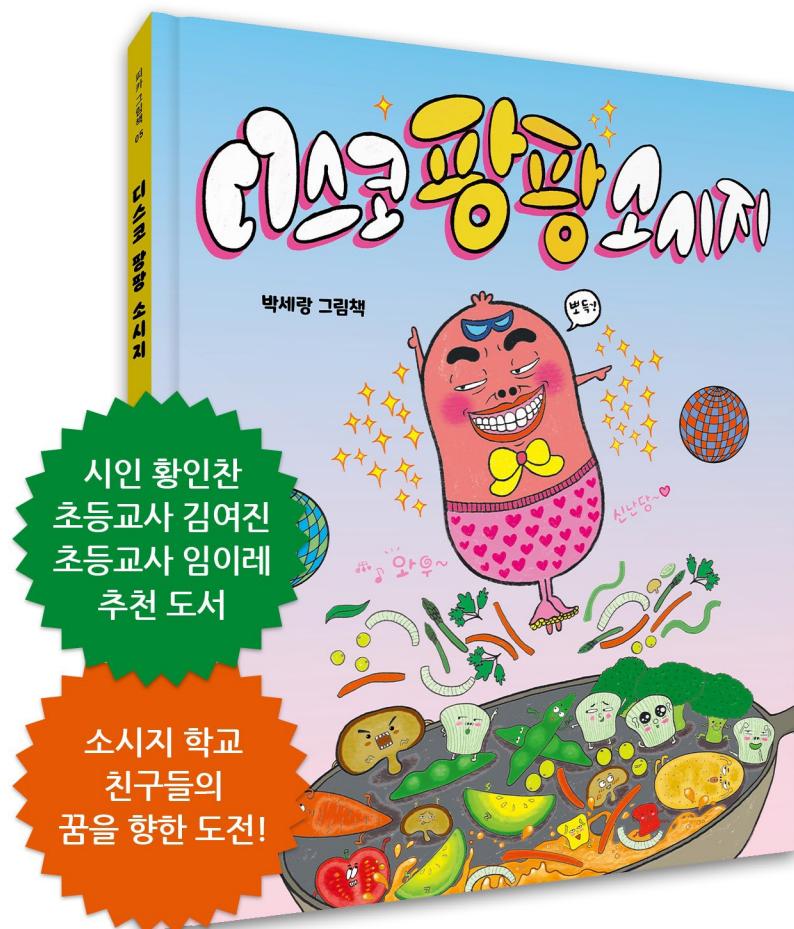


● 현직 초등 교사가 집필한 피카주니어 독서 활동지 ●



지글지글♪ 자글자글♪

팬 위에서 펼쳐지는
소시지 학교 친구들의
꿈을 향한 도전!



동네에서 엄격하기로 소문난 소시지 학교는 최상의 소시지가 되기 위한 수업들이 가득하다. 소시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 자신의 직업이 정해지는데 부대찌개용 소시지, 야채볶음용 소시지, 피자빵용 소시지, 핫도그용 소시지 등……. 대부분은 메인 재료인 부대찌개용 소시지가 되는 걸 꿈꾸지만, 전교 1등 뽀득이의 꿈은 춤을 추는 댄서가 것이다. 뽀득이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친구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춤추는 걸 숨긴다. 그러던 어느 날, 뽀득이 앞에 나타난 비엔나 선생님의 도움으로 뽀득이는 난생처음 부모님과 친구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된다.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과 달리 뽀득이는 앞에 나서서 춤을 추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데…….

저작자: 박세랑 | 초등 전 학년 | 44쪽 | 정가: 15,000원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4학년 국어 -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5, 6학년 실과 -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한다.

현직 초등 교사가 전하는《디스코 팡팡 소시지》의 매력

“넌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어?”

어린이들은 자라는 동안 늘 이런 질문을 받곤 하지요.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어린이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꿈이 너무 많아서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어렵다며 고민하는 어린이도 있고, 도무지 장래희망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어린이도 있어요. 또, 되고 싶은 건 있지만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되지 못할 거라고 자칫 포기하는 어린이도 있어요. 심지어, 왜 꼭 벌써부터 직업을 정해야 하냐고 되묻는 어린이도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이 모든 친구들의 말이 정답이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있는 내 모습대로 살아!”

어디선가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 사회가 1등이라고, 저렇게 해야 성공한 삶이라고 매섭게 노려보며 평가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소시지 세상에서의 1등은 사람들이 1등으로 치는 삶이랑은 다른가 봅니다.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소시지의 삶이 가장 근사한 삶이라니! 키득키득 웃고 싶지만 소시지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인걸요.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성격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때론 그 고집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고집스럽게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아끼며 살고, 고집스럽게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꿈을 향해 한발짝 나아가지요. 《디스코 팡팡 소시지》에는 다양한 소시지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어른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시지와 닮아 있나요? 한톨 만한 재능에도 호들갑을 떨며 칭찬 폭포를 쏟아붓는 비엔나 선생님의 모습이어도 좋겠고, 그 재능이 한껏 돋보이도록 촬영해 주는 영상 전문가 핫도그 소시지의 모습이어도 좋겠습니다. 어디서 짭쪼름 고소한 소시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침이 고여서 이만, 줄여야겠어요.

김여진(서울상신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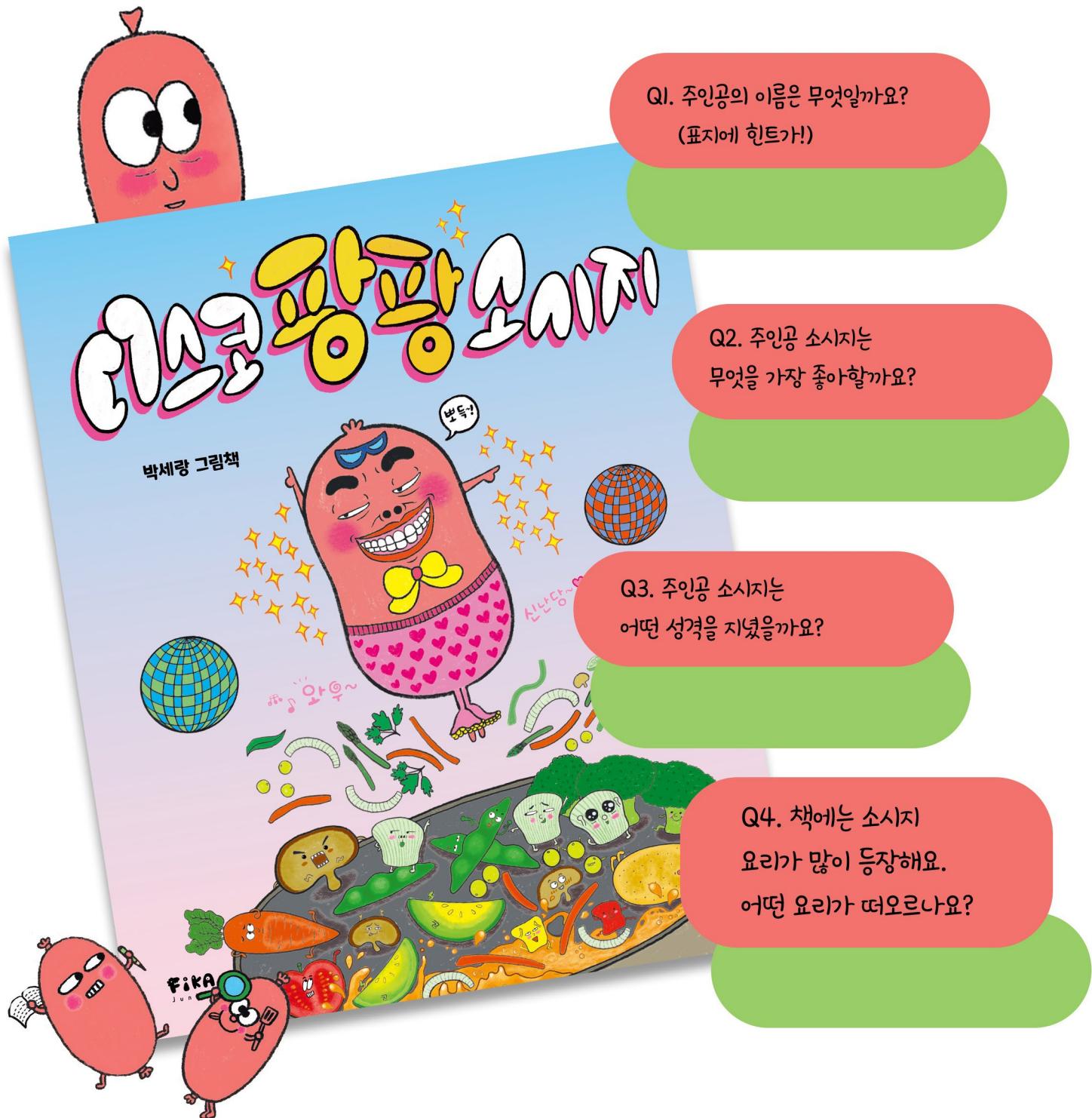
‘좋아서하는그림책연구회’ 운영진으로 매달 그림책 애호가들과 깊이 교류하며,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책을 집필하며, 그림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 집필도서 《재잘재잘 그림책 읽는 시간》, 《좋아서 읽습니다. 그림책》, 《피땀눈물, 초등교사》
- 번역도서 《엄청나게 커다란 소원》, 《나는() 사람이에요》, 《집 안에 무슨 일이?》, 《달팽이 헨리》, 《나의 아기 오리에게》, 《불안해도 괜찮아!》, 《선생님을 만나서》, 《모래 알갱이의 소원》 등 다수

1단계. 책 밖 들여다보기

활동 1: 표지 꼼꼼히 살피기

책을 읽기 전, 표지를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봅시다.



2단계. 책 속 탐험하기

활동 2 : 넌 어떤 요리 속 소시지가 되고 싶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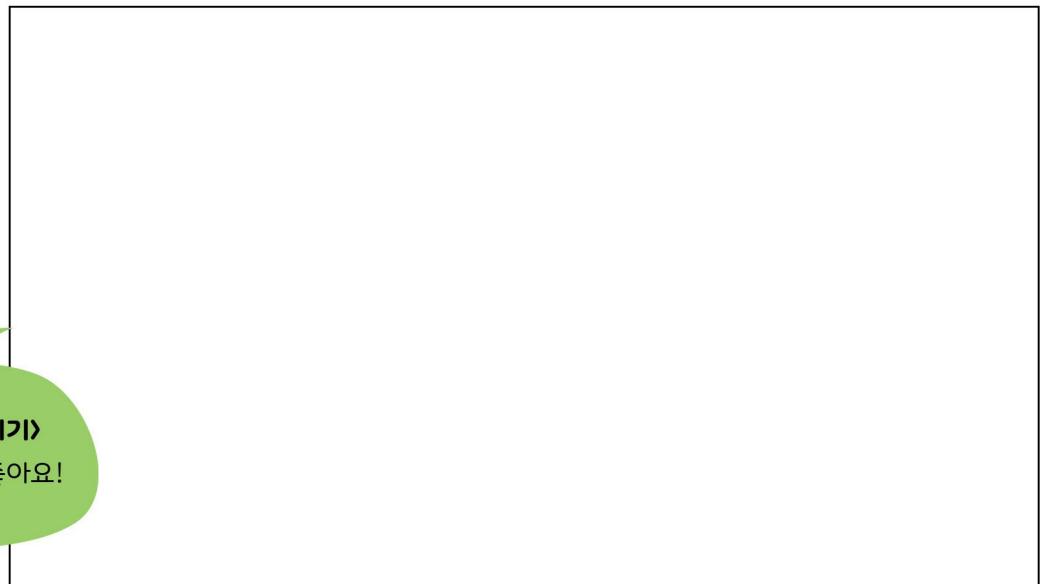
소시지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 속에 들어가다니! 미처 몰랐지 뭐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소시지라면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나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림책 속 가장 살아보고 싶은 소시지 요리를 골라 그려 보세요.
또, 개성 통통 튀는 나만의 소시지 요리도 생각해 그려 보세요.



〈소시지 요리 장면 그려보기〉
이 요리를 고른 까닭을 적어 보세요.



〈나와 어울리는 소시지 요리 그리기〉
세상에 없는 요리를 만들어 내도 좋아요!



2단계. 책 속 탐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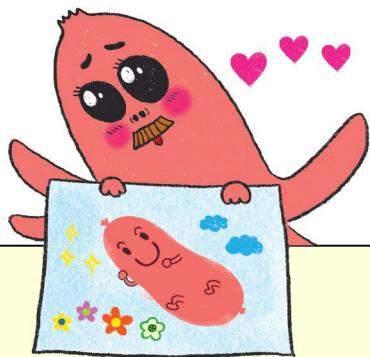
활동 3 : 소시지에게 편지를 건네요

그림책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소시지가 등장해요.
각기 다른 외모만큼이나 잘하는 것도, 성격도, 취미도 다르지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소시지를 정해 편지를 써 봅시다.
어떤 말을 전하고 싶나요?

어떤 소시지가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까닭도 생각해 봅시다.

(예시) 뽀득이 : 남들과 다른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서

(예시) 비엔나 선생님 : 뽀득이가 디스코를 좋아하는 소시지인 걸 알고
돕고 싶어서, 자신의 친구인 핫도그 소시지에게 뽀득이의 영상을 전송해 주어서



_____ 소시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_____ 라고 해요.

2단계. 책 속 탐험하기

활동 4 : 뽀득이도 친구가 필요해요!

소시지만 있어선 맛난 요리가 되기 어렵죠!

주인공 소시지 뽀득이와 어울리는 친구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함께 있으면 어울릴 만한 채소나 과일, 요리 재료를 캐릭터로 그리고,

이름과 성격, 특징도 적어 볼까요?

(예시) 오이 (이름 : 아삭이)

특징 : 맛이 새콤달콤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하게 뽀득이를 응원해 주어요.



이름 :

성격 :

특징 :

이름 :

성격 :

특징 :



이름 :

성격 :

특징 :

이름 :

성격 :

특징 :

2단계. 책 속 탐험하기

활동 5 : '수상한' 소시지 인터뷰

어떤 소시지의 삶은 좋아 보이고, 어떤 소시지는 불쌍해 보인다고요?

하지만 누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마련이지요.

소시지 기자의 인터뷰를 통해 저마다 다른 소시지들의 속마음을 들어보자고요.

어떤 질문과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시) 기자의 질문 :

부대찌개 속엔 너무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돋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노력이 있나요?

